

“130년 노하우 바탕으로 낙농업 발전 위해 노력할 것”

낙농 관련 전제품 생산하는 **드라발**



헤링본 착유시스템



전 세계 낙농시장의 25%를 점유하며 낙농관련 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 다국적 기업 드라발. 2000년 초 설립된 설립된 한국법인 드라발 주식회사(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표 강문석)는 낙농업 분야에서 130년 이상 집약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화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유질과 목장 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목장 운영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더 많은 고객 농가에게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목장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라발을 찾아가 보았다.

최상의 착유효과, 드라발 클로버 라이너

착유기 전문회사로 처음 문을 연 드라발은 점차 목장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며 낙농 명가로 자리잡았다. 그중에서 목장의 핵심 기자재인 라이너 제품은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편안한 착유와 함께 착유 효율을 높여왔으며, 현재 기존의 원형 라이너보다 진화된 ‘드라발 클로버 라이너’를 출시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출원 중인 이 라이너는 클로버 모양으로 디자인 돼 유두에 완벽하게 접촉시

하모니 플러스 착유 클러스터



킬 수 있으며, 착유하는 동안 유두를 부드럽고 확실하게 잡아 준다. 또한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해 소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우스피스에 공기 유입구가 필요 없도록 설계돼 분뇨나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고 착유 속도도 높였으며 유방 내 잔존 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문석 대표는 말한다.

“라이너는 고무 제품이지만 과학입니다. 클로버 라이너는 유방의 접촉면이 좋고 젖내림 속도가 빨라 착유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 식품에 적합한 고무 재질(푸드 그레이트)을 사용했어요. 저희 제품은 사용시기가 6개월이 지나거나 2천5백회 이상 착유해야 교체를 권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급이-착유-분만관리, 완벽한 통합 시스템 제공

드라발은 급이-착유-분만관리까지 목장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VMS 로봇착유기와 Opitimat II 마스터 급이 자동화 시스템 덕분이다.

현재 전국 40여 개 농가가 사용 중인 VMS 자동 로봇착유기의 로봇팔은 강화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척박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본체의 모니터링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만들어져 사용하기 편리하다. 유두세척은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데 먼저

각각 온수와 공기로 세정하고 자극을 주며, 전착유 및 건조과정을 거친 다음 착유를 시작한다. 특히 4분방착유과정에서 비정상유는 자동으로 분리되는데 이 때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가 인증한 광학 유량계로 산유량, 유속, 시간, 전도도 및 혈액 수치를 측정해 정상유 비정상유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와 작동 내용을 기록한다.

이와 함께 다기능 분뇨관은 착유공간에서 분뇨를 외부로 배출해 주고, 자동으로 바닥을 세척해 주며, 유방염 조기 경보시스템(MDi)은 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강문석 대표는 이 제품은 무엇보다 로봇착유기의 특징점인 생산량, 체세포수, 착유시간, 착유기 방문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우군관리가 편리

하고, 유량계의 우유 데이터와 개별 우유 샘플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 정확한 사료 급이와 질병관리를 도와준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드라발 Opitimat II 마스터는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우군별 배합비, 그룹, 먹이 섭취 일정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시간에 맞춰 각각의 우군별로 사료를 적재하고 혼합, 분배하는 일정을 관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정형 배합기가 자동으로 사료를 배합하고, 원하는 구간과 시간에 맞춰 사료 왜건(자동 TMR 분배기)을 통해 급이가 시작된다. 따라서 소들은 신선한 사료를 주기적으로 적정량 만큼 섭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목장에서 선호하는 드라발 제품은 스윙 카우브러쉬,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 테이블 커버, 오리지날 라이너, 고무튜브 등이 있는데 특히 스윙카우

VMS 로봇착유시스템



TMR분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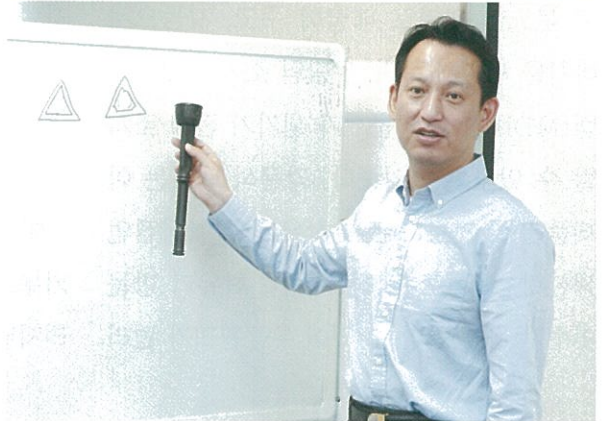
브러쉬는 2011년 특허를 취득한 전동식 제품으로 소가 접근했을 때만 회전하며,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해 건강한 우유생산을 하도록 돕는 제품이다.

목장 방문, 우사 관찰이 먼저

사람보다는 소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드라발은 전국 13개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며 본사경영방식을 추구하며 A/S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0년 간의 낙농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제품별 헬프데스크 제도를 도입해 A/S가 발생할 경우 지역 대리점과 함께 각각의 제품별 본사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웨덴 본사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서비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각 지역의 낙농기자재, 약품, 사료 업체, 지역 수의사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세미나를 통해 드라발 제품을 소개하며, 제품에 관한 불만이나 오해를 바로잡는다.

특히 목장을 방문할 때는 항상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착유실을 먼저 찾아가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한다. 강문석 대표는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목장이 잘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장의 튼튼한 상태나 발굽, 사조에서 사료는 충분한지 하루에 물은 얼마나 먹는지 음수대는 소가 접근하기 편안한 위치

전동식 스윙카우브러쉬



라이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강문석 대표

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착유장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교육한다고 한다.

“앞으로 저희 드라발은 제품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농가가 지속가능한 낙농업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고객 응대 속도를 높여 농가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낙농업을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